

정대준(광신대)

## 1. 들어가는 말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 양상을 띠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하여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도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에서 예외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의 질병 관리 지침에 따라 기독교인들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의료계, 교육계 등이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종식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자연스럽게 인류의 어떤 죄

www.kci.go.kr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sup>1</sup>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재앙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이며,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킴으로 인하여 사회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학자의 의무이다.<sup>2</sup>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해 심판이라 할지라도, 모든 징계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 내는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연구자의 책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지도 고민해야만 한다.

이에 발맞추어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상황을 극복해 내는 것을 물론 그 이후까지의 상황도 예견하면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sup>3</sup> 이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과연 구약성경 안에 그것이 질병과 관련된 재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과,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이 ‘종결’ 혹은 ‘해결’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코로나19와 기본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 
- 1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은 사람에 대한 심판인 경우가 많지만,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분에 관하여서는 신득일, 「구약과 현실문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228-238을 보라. 더불어 구약성경에서 감염병자에 대한 공동체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집(2006년 4월), 141-143을 보라.
  - 2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하 24장을 토대로 살펴본 정대준,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 바라보는 코로나”, 「교회통찰」, 안명준 편(서울: 세움북스, 2020), 56-62를 보라.
  - 3 성경본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글로는 이서영, “비접촉의 시대에서 바라본 접촉의 의미: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예수와 나병 환자의 접촉을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에서 읽기”, 「신학사상」 191집(2020), 15-47; 장세훈, “코로나 시대 분열의 갈등을 넘어: 느 1:5-11에 나타난 ‘우리’의 ‘죄 동일시’ 고백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5집(2020), 1-22를 보라.

사건은 ‘바벨탑’과 관련된 창세기 11장 1-9절이다. 비록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재앙이나 질병과 관련되었거나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하여 ‘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와 유사하게 사람들의 ‘홀어짐’을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처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 여부를 떠나 그것에서 파생된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그 긍정적인 부분은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논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1-9절의 문학적 구조를 조사하고, 철저한 주석작업을 통하여 본문에서 각 단어의 쓰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다.<sup>5</sup> 더불어 ‘바벨탑 사건’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과거의 신적 개입을 말씀하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기록이 코로나19와 같은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이 연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아웨의 ‘홀어짐’은 본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외면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5 바벨탑 사건의 역사적인 면을 조사하는 작업은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브래포드 A. 앤더슨/폴라 구더, 「최신 오경 연구 개론」(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178-179를 참고하라. 원제는 Bradford A. Anderson/Paula Gooder,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Pentateuch*, 2nd ed.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7).

## 2. 창세기 11장 1-9절에 대한 문학적 구조 분석과 주석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1장1-9절은<sup>6</sup>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교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바-에프라트(Bar-Efrat)는 이런 구조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움직임이 완전히 같은 단어 혹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묘사하여 “내러티브의 내용에 힘을 실어주며 작용과 반작용을 다루는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sup>7</sup>라고 설명한다.

### 1) 문학적 구조

돌시(Dorsey)는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간략한 교차대칭구조를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교차대칭구조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중심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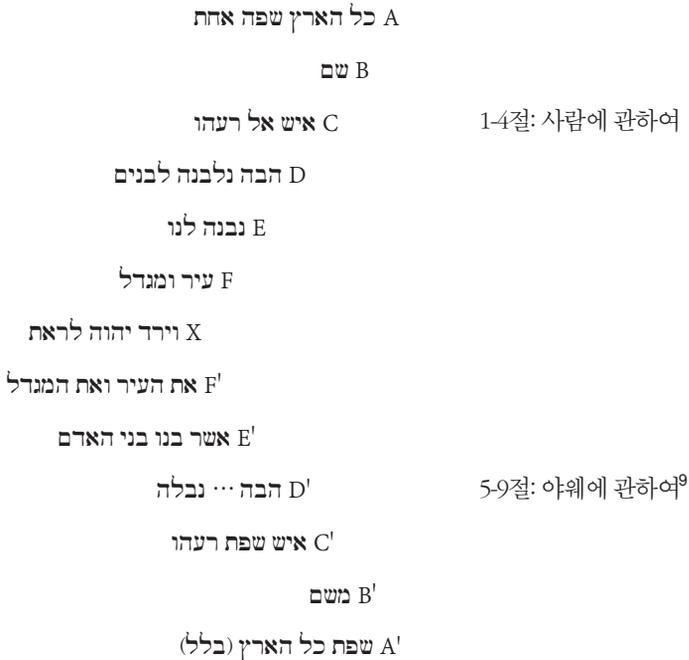
- a 서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음(11:1).
- b 시날 평지에 정착함(11:2)
- c 사람들의 결심: “자 우리가 … 하자” (11:3-4)
- d 핵심부분: 여호와께서 저들의 도모를 보심(11:5)
- c' 여호와와의 결심: “자 우리가 … 하자” (11:6-7)
- b' 시날 평지에서 흩어짐(11:8)
- a' 결론: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11:9)<sup>8</sup>

6 이후부터 편의를 위해 창세기 11장 1-9절 안의 각 절을 표시할 때는 1절, 2절 등으로 절만 제시할 것이다.

7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BLS 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10.

8 데이빗 돌시, 「구약의 문학적 구조: 창세기-말라기 주석」(류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3), 69. 원제는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

포켈만이 제시한 조금 더 세분화된 교차대칭구조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나레이터의 언급이 같은 단어나 문구를 통해 묘사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구조 중심(x)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려고 야웨께서 내려오심’이 위치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비록 둘시와 포켈만이 파악하는 본문의 중심은 각각 야웨의 ‘보심’과 ‘내려오심’으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5절이 이 사건의 중심에 위치함을 분명하게 둘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더불어 5절에 언급된 야웨의 행동, 즉 ‘보

---

*chi*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53.  
 9 J. P. Fokkeman,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Sheffield: JSOT Press, 1991), 22.

심'과 '내려오심'은 그분의 관심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그 관심이 그분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sup>10</sup>

## 2) 본문 주석<sup>11</sup>

### (1) 하나의 언어

사건의 배경을 독자에게 알려주면서 나레이터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이라고 언급한다(1절). 이러한 배경은 사건의 시작점으로 작용하며, 어떤 문제의 발생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sup>12</sup> 해밀턴(Hamilton)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 시대는 통상어(conventional vocabulary, ‘말이 하나였더라’)와 더불어 공통어(common language, ‘언어가 하나였더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지만,<sup>13</sup> 그의 설명은 이 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불충분하다. 그가 말하는 통상어는 히브리어 ‘אָרְבֵּי שָׁרָרִים’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몇몇 단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의 시작점

---

10 돌시는 자신의 책에서 5절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Yahweh discovers the plot.” 이 문장은 ‘야웨께서(그들의) 모의를 발견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돌시도 바벨탑 사건의 중심을 번역서처럼 여호와와 보심을 강조하고 있다기 보다는 포켈만의 주장(보려고 내려오심)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53.

11 본 주석작업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짧은 본문에 대한 최근의 세밀한 주석작업은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집(2021년 6월), 138-149를 참고하라.

12 아미트(Amit)가 제시한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참조하라. 그녀는 이것을 다섯 단계로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다. “드러냄 → 문제 → 변화 → 풀림 → 결말.” 1절의 서술은 이야기 구성요소 중 ‘드러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아직 어떤 문제 거리는 아니지만, 곧 그것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47.

13 빅터 해밀턴, 『창세기 I』(임요한 옮김), (NICO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395. 원저는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4 אָרְבֵּי의 남성, 복수형인 אָרְבֵּיים은 여기를 포함해 히브리 성경에 다섯 번 등장하는데, 이곳을 제외한 세 번의 경우에는 모두 날(יָמִים)의 복수형을 수식하며 ‘몇 날(a few days)’을 의미한다(창 27:44, 29:20; 단 11:20). 마지막 한 예인 에스겔 37장 17절에서는 אָרְבֵּי의 남성, 복수형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홀로 사용된다.

을 언급할 때의 사람들은 몇몇 단어들로 구성된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언어를 이용하여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들에게 많은 어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9절에서 이들의 한 언어를 야웨께서 혼잡하게 하셨다는 설명을 할 때 ‘אַחַת לְשׁוֹן’<sup>15</sup>이 언급되지 않는 점은 이 문구가 אֶתְּ אֶתְּ אֶתְּ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몇몇 단어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준다.<sup>15</sup> 여러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서 이들은 1절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단어들을 구사했을 것이 분명하다.

1절의 “온 땅에 언어가 하나”라는 설명을 통해 독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온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분인 “땅에 충만하라”(אֲמַלֵּא)라는 명령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가득 참인지, 여기에 등장하는 ‘온 땅’이 지구 전체를 언급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레이터를 통해 독자는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으므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언급은 그 하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언어 공동체끼리의 새로운 집단(colony)를 이루게 된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전까지 인류의 충만했던 경험은 창세기 6장 11, 13절에서의 보도처럼 땅에 사람 대신 가득한 ‘포악함’이었지만, 계속 새로운 집단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야웨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15 히버트(Hiebert)는 ‘אַחַת לְשׁוֹן’을 “one (collection of) words”라고 설명한다. Theodore Hiebert, “The Tower of Babel and the Origin of the World’s Cultures,” *JBL* 126 (2007), 33. 라코크(Lacocque)는 이 문구를 “표현상 복수와 의미상 단수를 동시에 강조하는 일종의 모순어법”으로 본다. André LaCocque, “Whatever Happened in the Valley of Shinar? A Response to Theodore Hiebert,” *JBL* 128 (2009), 33.

## (2) 이동과 정착

2절에서 언급된 그들의 이동(עָבְדוּ)은 땅에 충만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여기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땅에 충만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흠어져야 하는데, 대신 그들은 정착하고(וַיִּשְׁבּוּ; 2절), 흠어짐을 꺼려하기 때문이다(וַיִּבְנוּ-בְּגִבּוֹרֹת; 4절). 이동과 반대되는 정착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데라 가족은 하란에 정착했는데(창 11:31) 땅에 가득하기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착하는 일은 필수적이기도 하다.<sup>16</sup> 이동은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사 עָבְדוּ를 통하여 히브리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그들이 이동을 멈춘 이유는 정착할 만한 평지(הַקְּעָבָה)를 찾았기 때문이다. הַקְּעָבָה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골짜기,’ ‘평지,’ 그리고 ‘들판’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sup>18</sup> 신명기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속한 한 부분인 골짜기(신 8:7; 11:11; 34:3)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הַקְּעָבָה는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다(수 11:8, 17; 12:7). 비록 라코크(LaCocque)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장소인 높은 곳과는

16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주실 장소로의 이동과 더불어 그곳에서의 정착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하란에 정착한 데라 가족도 그곳에서 아들 가족이 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증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동과 정착은 반대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순환 개념을 갖는다. 와비디(Awabdy)는 앤더슨(Anderson)의 주장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Mark A. Awabdy, “Babel, Suspense, and the Introduction to the Terah-Abram Narrative,” *JSTO* 35 (2010), 17.

17 동사 עָבְדוּ의 대표적인 용례인 창세기 12장 9절의 아브람의 움직임은 살펴보자. 더불어 창세기 곳곳에 등장하는 이 동사의 창세기 안에서의 용례는 족장들의 이동과 분가를 통하여 더 많은 가족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창 13:11; 20:1; 33:12, 17; 35:5, 16, 21; 37:17; 46:1). 링그렌은 “이 동사가 족장 네러티브에서 핵심어”라고 설명한다. H. Ringgren, “עָבַד,” *TDOT* 9, 462.

18 이 단어를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U자 모양의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HALOT은 정의한다. HALOT, 150.

달리 골짜기는 아말렉인이나 가나안인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기에 이스라엘에게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sup>19</sup>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증거로 제시한 본문에서 ‘골짜기’ 혹은 ‘평지’를 뜻하는 단어는 **קַעֲוֹן**가 아니라, **עַרְבָּה**(민 22:1)와 **עֲמֹק**(민 14:25)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קַעֲוֹן**는 히브리 성경 곳곳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죽음을 맞이하는 요시아가 있었던 장소를 묘사할 때 사용되며(대하 35:22), 느헤미야의 위험을 암시하는 장소를 그럴 때도 사용된다(느 6:2). 하지만 **קַעֲוֹן**는 대부분 그것의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곳으로 묘사되는 특징을 갖는다(시 104:8; 사 40:4; 41:18; 63:14; 겔 3:22, 23; 8:4; 37:1, 2; 속 12:11).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 단언할 필요는 없다.

### (3) 언어유희로서 ‘거기’

‘바벨탑 사건’ 안에서 그들이 정착한 시날 땅<sup>20</sup> 안의 평지는 ‘거기(**שָׁם**)’라는 말로 대체된다. 나레이터는 시날이라는 특정 지역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로서의 ‘거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

**שָׁם** (2절)

**שָׁם ... שָׁמַיְמָה** (4절)

**שָׁם** (7절)

19 LaCocque, 윗글, 32.

20 시날과 바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대웅,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 and Culture』 9권 (2015), 224-233을 참고하라.

מִשָּׁפָּה (8절)

מִשָּׁפָּה ... מִשָּׁפָּה ... מִשָּׁפָּה (9절)

מִשָּׁפָּה와 발음이 유사한 ‘하늘(שָׁמַיִם)’과 ‘이름(שֵׁם)’도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인 מִשָּׁפָּה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롱맨(Longman)은 이러한 언어유희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소리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단어들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들 자체에 독자의 관심을 끄는 리듬감을 부여한다”<sup>21</sup>라고 말한다. 언어유희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설명에는 동의하지만, ‘하늘’과 ‘이름’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 정착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מִשָּׁפָּה도 같은 의미로 이 이야기 안에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sup>22</sup> 오히려 이 이야기 안에서 מִשָּׁפָּה보다 적게 등장하는 ‘שָׁמַיִם’과 ‘שֵׁם’의 발음상의 기능은 מִשָּׁפָּה가 내포하는 의미인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를 독자에게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sup>23</sup>

#### (4) 높은 탑

탑의 머리(꼭대기)가 하늘에(רֹאשׁוֹ בְּשָׁמַיִם) 이르게 하려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려는 의도이며, 이런 높은 건축물은 이방신에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가?<sup>24</sup>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에서 사람들이

21 Tremper Longman III, *Genesis* (The Story of God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16), 148.

22 윗글, 148.

23 히브리 성경으로 창세기 32:23-33에 등장하는 압복강 사건에서도 이러한 언어유희가 사용되는데, 사건의 주인공인 야곱(יַעֲקֹב)은 7번, 사건의 장소인 압복(אֶבֶק)은 1번, 일어난 행동인 썩름(אֶבֶק)은 2번 유사한 발음으로 언급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llen P. Ross, “Studies in the life of Jacob: Part 2. Jacob at the Jabbok, Israel at Peniel,” *BS* 142 (1985), 344를 보라.

24 바벨론의 탑들이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벨탑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할랜드(Harland)는 주장한다. P. J. Harland, “Vertical or Horizontal: The Sin of Babel,” *VT* 48 (1998), 523.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묘사를 나레이터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다.<sup>25</sup> 또한 그들이 탑에 어떤 우상을 세우려는 시도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이 세우려는 탑은 하늘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 높은 탑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즉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고,<sup>26</sup> 하늘에 닿을 만하게 높이 만들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에서 말하는 ‘하늘’은 야웨께 반역하는, 혹은 야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이 건설하려는 도시의 구성요소로서<sup>27</sup> 그 도시를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위협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웅장한 규모의 탑’을<sup>28</sup> 묘사하는 말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이 정착한 **ἰσραήλ**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이름 만들기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려고(**וַיִּבְנוּ**) 하는 이름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온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자만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성경 곳곳에서 독자는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나오는데, 야웨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וַיִּמְדֹּד אֱלֹהִים אֶת־שְׁמִי עָלֶיךָ**; 창 12:2)’라고 선언하신다. 다니엘은 ‘당신을 위해 이름을 만드셨다(**וַיִּמְדֹּד אֱלֹהִים אֶת־שְׁמִי עָלֶיךָ**; 단 9:15)’라고 야웨께 기도한

25 윗글, 523.

26 윗글, 528. 당시에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구상에 유일한 존재였다면, 여기에서 방어의 의미는 그들의 ‘적’ 이라기 보다는 날씨와 야생 동물 등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생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27 8절에서 도시 건설을 멈추었다고 묘사하지, 도시와 탑의 건설을 멈추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탑은 도시의 구성요소 중 일부본인 것 같다.

28 Hiebert, 윗글, 37.

다.<sup>29</sup> 나레이터는 하나님이나 사람이 명성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의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sup>30</sup> מִנְיָם과 마찬가지로 מִנְיָם은 발음상으로 מִנְיָם을 떠오르게 하며, 그들의 정착지인 ‘거기’를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따라서 2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מִנְיָם의 문맥상 의미가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분명해지겠지만, 처음부터 그 의미를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6) 말하고 말하기

3절 이후에 가장 눈여겨볼 동사는 ‘말하다’를 의미하는 ‘אָמַר’이다. 나레이터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야웨를 포함한 등장인물에 대한 움직임은 묘사하는 동사 중에 אָמַר는 가장 많이 언급된다. ‘바벨탑 사건’에서 이 동사는 주어의 행동 후에 등장한다. 사람들은 정착한 후에 말하기 시작하고(24절), 야웨는 내려오신 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5-7절). 물론 7절 내용을 볼 때 야웨는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나레이터의 이러한 본문 배치는 사람들과 야웨의 말하기를 대조적으로 보게 만든다. 각 주어가 말하는 것은 그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다. 3절과 4절에서 말해진 그들의 계획은 5절의 야웨의 움직임을 수반함과 동시에 8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실행되고, 6절 이후에 선언된 야웨의 계획은 8절 전반부에서 그분이 예상했던 대로 실현된다. 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장점을 살려 서로에게 계속 말하는 반면, 야웨는 한 번만 이야기하신다. 사람들

29 이름을 내는 것, 즉 명성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 용례는 Hiebert, 윗글, 40, 각주 32를 참조하라.  
 30 대표적으로 ‘מִנְיָם’이라는 히브리어는 때에 따라 ‘간교함’(창 3:1; 뱀에 대하여; 욥 5:12; 15:5 교활함으로) 혹은 ‘슬기로움’(잠 12:16, 23, 13:16; 14:8, 15, 18; 22:3; 27:12; 미련함과 대조하여)으로 번역되어, 번역본을 읽는 독자에게 중립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관련 본문을 접하자마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읽게 된다.

의 계획은 אָמַר 동사를 두 번 사용하면서, 장황하고 소란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상당히 인간적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야웨의 계획은 이 동사를 한 번 사용하여 독자가 간결하게 느끼도록 나레이터는 유도한다.

그들이 흠어지게 되면서, 계획했던 도시 건설만 멈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는 것도 멈췄다는 점은 흥미롭다. 5절 이후에 나레이터는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서로 잘 소통했던 것 같았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침묵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잘했던 그들이 이런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건설 작업을 멈추는 데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소통의 불가가 흠어짐을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שָׁב’와 ‘חָרַל’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절과 2절 전반부의 배경 설명과 9절의 결론을 제외하고 이야기 전체를 둘러싸는 역할을 하며, 이야기 내부에 언급되는 움직임들을 부각시킨다. אָמַר로 표현되는 인간의 소통을 “자신들의 삶에 불만을 품고 있음”<sup>31</sup>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 야웨께서 그들에게 분명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 대로 말하고, 야웨께서는 따로 “천상의 어전 회의”<sup>32</sup>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야웨와 인간 사이의 대화 부재에서 오는 긴장감을 이 이야기 구조 안에서 나레이터는 독자에게 보여 준다.

וַיִּשְׁבוּ אֲנָשִׁים	(2절) A. 멈춤 (말단)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3절) B. 계획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4절) B'. 계획
וַיִּרְדּוּ יְהוָה	(5절) C. 결과

31 브루스 K. 월키/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11. 원제는 Bruce K. Waltke/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32 월키/프레드릭스, 윗글, 314.

- וַיֹּאמֶר יְהוָה (6절) B". 계획
- וַיִּצַן יְהוָה (8절) C'. 결과
- וַיְהַדְּלוּ אֲנָשִׁים (8절) A'. 멈춤 [결말]

### (7) 공동체의 목표

3절과 4절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독자는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다. 사람들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필요 없는 것 같은 감탄사 ‘הָבָה’를 먼저 내뱉는다. 월키(Waltke)와 프레드릭스(Fredricks)는 이 감탄사가 사람의 “완고한 결심”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sup>33</sup>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나레이터는 הָבָה를 사용하여, 인간이 야웨보다 더 완고함을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sup>34</sup>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청유형”<sup>35</sup>으로 이야기함을 통하여 그 일이 어느 누구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원이자 목표임을 알리면서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다. 3절에서 계속되는 유사한 소리의 반복은 그들의 결심이 확고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고,<sup>36</sup> 1절의 문구 ‘אָמְרִים לְהָבִי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지만, 사용하는 어휘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벽돌을 굽는 일은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에게 당했던 고통을 간접적으로 떠오르게 하는데,<sup>37</sup> 그렇다고 해서 훗날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벽돌을 만들려는 그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단지 인류의 문화적

33 윗글, 311. 다른 예로는 창세기 38장 16절과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라.

34 사람들의 말 앞에는 הָבָה가 두 번, 야웨의 선언 앞에는 הָבָה가 한 번 나온다.

35 김경열은 ‘cohortative’를 ‘청유법’이나 ‘권유법’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1인칭 주어의 강한 의지나 소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지법’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김경열, 「원리로 배우는 토라 히브리어 문법」(서울: 솔로몬, 2020), 446.

36 월키/프레드릭스, 윗글, 311; Gorden J. Wenham, *Genesis* (WBC 1; Waco: Word Books, 1987), 239.

37 LaCocque, 윗글, 35, 각주 18.

발전을 상징하는 우회적 표현일 수 있다. 독자는 3절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벽돌을 만들어 구우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곧바로 4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유를 드러내지 않고 벽돌 만들기를 먼저 이야기 하는 이유는 독자가 도시와 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윌키와 프레드릭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도시와 탑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와 탑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어떤 독자가 이해한다면 그것들의 기능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sup>38</sup> 그 가능성조차 나레이터는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 같다.

4절의 두 번째 הָבִיחַ 이후, 벽돌을 굽고자 했던 목적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진술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도시와 탑을 세우고, 스스로를 위해 이름을 만들자고 서로를 격려한다. 첫 번째 הָבִיחַ 이후의 언급과 달리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청유형’ 동사 뒤에 ‘נָבִיחַ’의 첨가이다. 그들의 도시를 세우고 탑을 건축하려는 의지가 그들 자신의 관심에서 나온 결정임을 이 재귀용법의 전치사구는 보여준다.<sup>39</sup> 그들의 관심을 부정적으로 여길 이유는 없다. 4절 후반부에서 독자는 그들이 벽돌을 구워 도시와 탑을 만들려 하는 궁극적 이유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 (פָּוֶן נִפְוֶן עַל־פְּנֵי כָּל־הָאָרֶץ)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자음 ‘페(פ)’의 반복과 각운(end-rhyme)으로써 자음 ‘라멧(ל)’과 ‘차테(צ)’의 반복은 일종의 언어유희로서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여 나레이터가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의 목적이 확고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 윌키/프레드릭스, 윗글, 311-312.

39 Andrew Giorgetti, “The ‘Mock Building Account’ of Genesis 11:1-9: Polemic against Mesopotamian Royal Ideology,” VT 64 (2014), 8.

1절에 등장했던 ‘כָּל־הָאָרֶץ’가 4절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כָּל־הָאָרֶץ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기’에 정착한 그들이 ַּשָּׁמָּיִם으로부터 כָּל־הָאָרֶץ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이 문구는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8) 야웨의 진단

6절과 7절에 나타난 야웨의 말씀의 구조는 3절과 4절의 사람들의 말과 유사하지만 다르다. 6절에서는 הַקִּבָּה 대신 הָאָרֶץ이 다음 문장들을 이끈다. הָאָרֶץ이 이끄는 문장들은 ‘청유형’이 아니라, 3절과 4절에서 거주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그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한 조상에서 유래한 한 족속이며,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야웨는 진단하신다. 계속되는 문장들과 달리 6절의 동사 없는 문장은 그들의 현상태를 돋보이게 한다. 그들의 계획과 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왜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원인만 야웨께서 제공하신다. ‘이것이 그들이 하려고 시작한 것(לְעֲשׂוֹת זֶה הַחֲלָמָה)’이라는 표현에서 ‘עָשָׂה’ 동사가 사용된 것은 4절에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원과 연결된다. 그들은 ‘도시와 탑’은 세우려고(בְּנֵה) 했지만, ‘이름’은 만들려고(עָשָׂה) 한다. 폴진(Polzin)은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야웨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사건 중에 나타난 주된 요소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 주장한다.<sup>40</sup> 이 야웨의 약속 중 창세기 12장 2절의 “네 이름을 창대하게(וְאָנְדָּלָה שְׁמִיךָ)” 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서 탑(בְּנֵה)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사람들의 소원과 유사하다(וְנִבְנְתָה לָנוּ שָׁם). 이러한 연관성은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 즉 이름을 내는 것이 자녀를 얻는 것과 의미상 관련됨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은 도시 건설

40 Robert Polzin, “‘The Ancestress of Israel in Danger’ in Danger,” *Semeia* 3 (1975), 84.

을 통한 자신들의 명성이라기보다는 정착한 그곳에서 살 후손들에 대한 소망일 수 있다. 야웨께서는 그런 그들의 세밀한 생각을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3절과 4절에서 계획한 모든 것, 즉 벽돌을 만들어 굽고, 도시와 탑을 세워, 이름을 내는 것을<sup>41</sup> 그대로 두면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하신다.<sup>42</sup> 그들은 한 장소에서 한 언어를 가지고 한 족속으로 계속해서 남기를 원했다. 자손을 낳고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은 야웨의 명령이자 축복이지만, 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야웨께서는 자신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보이는 이곳에서만 충만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신다.<sup>43</sup>

41 스트롱(Strong)은 3절과 4절의 문법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הָבִיחַ + 청유형/הָבִיחַ + 청유형/(הָבִיחַ 없는) 청유형의 순서”로 본다. 그래서 램딘(Lambdin)이 제안한 해석 방식에 따라 הָבִיחַ 없는 마지막 청유형을 앞사의 청유형들의 목적 혹은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그가 왜 이 부분에 청유형 동사가 4개가 아니라 3개만 있다고 설명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각 절의 הָבִיחַ 없는 청유형을 הָבִיחַ를 뒤따르는 청유형의 목적이나 결과로 해석하려는 설명의 오류인 것 같다. John T. Strong, “Shattering the Image of God: A Response to Theodore Hiebert’s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JBL* 127 (2008): 632.

42 동사 בָּנִיּוּ의 니팔 어간은 히브리어 성경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곳과 욥기 42장 2절이다. 다만 대상이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고, 욥기에서는 ‘야웨’라는 점만 다르다. 무언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בָּנִיּוּ에 부정어 אֵין가 결합하면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사람의 불가능하지 않음은 야웨 하나님의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욥기에서의 야웨의 불가능하시지 않음은 사람을 그의 보호 아래 살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6절의 야웨 하나님의 이러한 언급은 야웨께서 사람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그 계획대로 실행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야웨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라.

43 계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בָּנִיּוּ’은 야웨께 대항하여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Hiebert, *위글*, 46. 참고로, 구약성경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5번 모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려고 세운 계획에 대한 언급이며(신 19:19; 시 31:14; 37:12; 140:9; 잠 30:12), 나머지 8번 중 시편 17편 3절과 잠언 4장 28절은 사람의 선한 계획을, 예레미야 4장 28절; 51장 12절; 예레미야애가 2장 17절; 스가랴 1장 6절; 8장 14, 15절에서는 야웨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본문 6절의 그들이 하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그 계획이 야웨께 반역하는 것이라 여길 근거는 부족하다.

### (9) 아웨의 해결책

7절에서는 아웨의 말씀이 다시 3절과 4절의 사람들의 말에서처럼 감탄사 ‘הִנֵּה’ 뒤에 등장한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말과 비슷한 형태의 표현이 언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예상대로 아웨께서는 ‘청유형’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 혼잡하게 하자”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천상의 어전 회의”를 유추하게 한다.<sup>44</sup> 또한 3절과 4절의 그들의 말을 흉내 내는 이 표현은<sup>45</sup> 아웨의 성품을 더 친근하게 여기도록 독자를 유도한다. 그분은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아웨께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한 5절을 살펴볼 때 자세히 보고자 한다. 아웨께서는 이제 그들의 하나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 하신다. 이미 그들의 언어는 혼잡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3절에서는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자(וּבְנֵהוּ)고 하며, 4절에서는 도시와 탑을 건축하자(וּבְנֵהוּ)고 한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것을 섞어버리자(וּבְבִלְהָ)고 아웨께서 말씀하신다.<sup>46</sup> 각 단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자음의 유사함과 섞임은 ‘혼잡함’을 적절하게 드러낸다. 이 혼잡함은 한 장소인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한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 혼잡함을 통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처럼, 한 장소는 여러 장소로, 한 언어는 여러 언어로 늘어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혼잡함은 7절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자기 친구)의 말을 듣지 못하는(לֹא שָׁמְעוּ)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절에서 독자는 이미 그들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들은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44 윌키/프레드릭스, 윗글, 314.

45 LaCocque, 윗글, 37.

46 윌키와 프레드릭스는 발음의 유사함에 대하여 וּבְבִלְהָ와 וּבְנֵהוּ만 언급했지만, 라코크는 여기에 וּבְנֵהוּ를 추가하여 혼잡함을 설명한다. 윌키/프레드릭스, 윗글, 314; LaCocque, 윗글, 37.

된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즉,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아웨께서  
 는 그들의 말을 들으실(즉 이해하실) 것이다.<sup>47</sup>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3절)

הָבָה

נִלְבְּנָה לְבָנִים

וְנִשְׂרָפָה לְשִׂרְפָּה

וַיֹּאמְרוּ (4절)

הָבָה

נִבְנֶה־לָּנוּ עִיר וּמִגְדָּל וְרֵאשׁוּ בַשָּׁמַיִם

וְנַעֲשֶׂה־לָּנוּ שֵׁם

כִּי־נִפְוֶזֶן עַל־פְּנֵי כָּל־הָאָרֶץ

וַיֹּאמֶר (6절)

הֵן

עִם אֶחָד וְשֵׁפָה אַחַת לְכֻלָּם

וְזֶה חֻקָּם לַעֲשׂוֹת

וַעֲתָה לֹא־יִבְצָר מֵהֶם כָּל

אֲשֶׁר יִזְמוּ לַעֲשׂוֹת

הָבָה (7절)

גִּרְדָּה

וְנִבְלָה שֵׁם שְׂפָתָם

אֲשֶׁר לֹא יִשְׁמְעוּ אִישׁ שִׁפְתֵי רֵעֵהוּ

47 출애굽기 2장 24절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וַיִּשְׁמַע אֱלֹהִים אֶת־נַאֲקָתָם)와 비교하라.

## (10) 아웨의 내려오심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구조상 가장 중심에 있는 5절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רָדַד**’는 아웨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내려오심을 의미한다. 하틀리는 인간이 무엇을 도모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아웨께서 내려오셨으며, 여기에는 “심판의 실행”과 인간에 대한 “빈정거림”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sup>48</sup> 이것은 창조 이래 아웨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첫 사건이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아웨께서 내려오시려고 계획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분은 지금 발생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동사 ‘**רָדַד**’의 주어가 사람일 때는 그 의미가 중립적이지만,<sup>49</sup> 신적 움직임은 언제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sup>50</sup> 더불어 인간의 문제가 아웨의 관심, 즉 내려오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내려오셔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실 필요가 없는 아웨이시지만, 그분은 나레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다.<sup>51</sup> 이 내려오심을 통하여 멀게만 보였던 사람과 아웨와의 거리는 가까워진다.<sup>52</sup>

## (11) 아웨의 흠으심

‘내려오심’처럼 8절의 ‘흠으심(**רָדַד**)’도 아웨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48 존 E. 하틀리, 「창세기」(김진선 옮김), (UBC: 서울: 성서유니온, 2019), 195. 원제는 John F. Hartley, *Genesis* (UBC: Grand Rapids: Baker, 2012).

49 긍정적인 부분: 출애굽기 2장 5절(바로의 딸이 내려옴); 여호수아 2장 15절(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림) 등. 부정적인 부분: 창세기 37장 35절; 42장 38절; 44장 29, 31절(아람이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 말하는 부분); 출애굽기 32장 1절(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옴) 등.

50 창세기 46장 4절; 출애굽기 3장 8절; 19장 11, 18, 20절; 34장 5절; 민수기 11장 17, 25절; 12장 5절; 시편 18편 10절 등.

51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과 비교하라.

52 G. Mayer, “**רָדַד**,” *TDOT* 6, 322.

중요도를 갖는다. 야웨는 그들을 거기로부터(עַדָּה) 온 땅으로 흠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한 이유는 거기에 계속 살면서 온 땅으로 흠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4절).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거기’에 정착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동해 흠어져 온 땅 곳곳이라는 수많은 다른 ‘거기’에 정착해야만 한다. 한 언어를 섞어 여러 개로 만드신 야웨는 최종적으로 한 족속인 그들을 흠으셔서 여러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야웨의 ‘흠으심’은 그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다.<sup>53</sup> 서로 알이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흠어지도록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레이터는 그러므로 야웨께서 그들을 흠었다고 묘사한다. 야웨의 ‘흠으심’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도시 건설을 멈추게 한다. 하지만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단은 생각된다. 해밀턴은 이에 대해 야웨를 “화나게 한 것이 탑 자체가 아니라 성읍 건설이었음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한다.<sup>54</sup>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탑(방대)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도시 건설을 멈추었다는 언급은 탑을 세우는 일도 중단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탑(방대)을 구약성경에서 ‘야웨의 이름’이나 ‘야웨께서 제공하시는 피난처’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때(잠

53 야웨의 흠으심이 징벌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징벌로 보고자 하는 학자인 스트롱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분은 홍수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사람들에게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을 흠으심으로 벌하신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냄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은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26절의 셈의 족보에서, 그리고 뒤따르는 창세기 11장 27-32절의 데라의 족보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만을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으며, 어쩌면 너무 작아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는 분이시다. 스트롱은 야웨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흠은 것을 그들의 반역과 오만 때문이라고 여겨서 징벌로 보고자 한다. ‘바벨탑 사건’의 결말은 사람들의 흠어짐이었지만, 그 이후 그 흠어짐은 그들의 후손의 증가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후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깨짐’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 같다. 야웨의 번뇌와 고민이 ‘바벨탑 사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흠어짐을 징계로 여기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Strong, 윗글, 633-634를 보라.

54 해밀턴, 윗글, 402.

18:10; 시 61:4),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평지에 정착했던 그들이 높은 곳을 세워 야웨께 예배하거나, 야웨께서 주신 피난처로 여기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55</sup>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웨의 흠으심을 통해 탑에 대한 언급 없이 도시를 건축하는 일만 그들이 멈추었다고 보고하는 나레이터의 말은 정확하다.

5절 וַיִּבְנוּ יְהוָה לְרֵאשִׁית אֶת־הָעִיר וְאֶת־הַמִּנְדָּל

אֲשֶׁר בָּנוּ בְּנֵי הָאָדָם

8절 וַיִּבְנוּ יְהוָה אֶתֶם מִשָּׁם עַל־פְּנֵי כָּל־הָאָרֶץ

וַיַּחְדְּלוּ לִבְנֵת הָעִיר

나레이터는 9절에서 **עָר**의 정확한 **עָר**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עָר**은 1절에서는 거처를 찾는 방랑자들이 정착했던 장소였지만, 9절에서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3인칭, 여성, 단수 형태의 대명사 접미를 통해 어느 정도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암시한다. 도시 이름 ‘**בָּבֶל**’과<sup>56</sup> 섞음을 의미하는 동사

55 시편 122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거기’에 올라가는 자들로 묘사한다(**עָר**), 여기에서 ‘거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웨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비록 프라이(Frye)는 ‘바벨탑’을 예루살렘에 대한 “악마의 페러디”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거기’나 창세기 11장의 탑이 세워지는 ‘거기’ 모두에 등장하는 높은 곳은 야웨를 섬기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 프라이의 주장은 Northrop Frye,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San Diego: A Harvest Book, 1983), 158을 보라.

56 툴(Tull)은 “기원의 책인 창세기는 동물과 지손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장소를 명명하는 인간의 성향을 묘사한다”라고 창세기에 대해 설명한다. Patricia K. Tull, “Jobs and Benefits in Genesis 1 and 2: A Feminist Biblical Theology of Creation,” Patricia K. Tull and Jacqueline E. Lapsley (ed.), *After Exegesis: Feminist Biblical Theology*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5), 21.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였던 도시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프(Roop)는 ‘바벨탑 사건’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고유명사”가 ‘혼란(**בָּבֶל**)’이라는 사실과 무명이었으나 일치되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무명인 상태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언급한다. 유진 F. 루프, 「창세기」(임요한 옮김),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논산: 대장간, 2019), 92. 원제는 Eugene F.

‘בלל’은 7절에서 사용되었던 נבלה와 다른 동사들과의 관계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언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소리로 생동감 있게 보여 준다. 8절과 9절 사이에서 מִשָּׁם עַל־פְּנֵי כָּל־הָאָרֶץ의 반복은 그들이 거주할 장소는 ‘거기’가 아니며 온 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웨의 거기에 내려오심이 그분과 그들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했던 것처럼, 아웨의 ‘흠으심’은 그분의 명령을 그들이 실행하도록 이끄는 촉진제으로써 작용한다.

וַיִּפֹּץ יְהוָה אֶת־מִשָּׁם עַל־פְּנֵי כָּל־הָאָרֶץ 8절

עַל־כֵּן קָרָא שְׁמָהּ בְּבָל 9절

כִּי־שָׁם בָּלַל יְהוָה שְׁפֹת הָאָרֶץ

וּמִשָּׁם הִפִּיעָם יְהוָה עַל־פְּנֵי כָּל־הָאָרֶץ

## (12) 나레이터의 평가

이야기의 끝까지 나레이터는 시날 평지에 정착해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독자에게 그 평가를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포켈만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속에 거만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레이터가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과도한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함께 묶고, 흠어짐, 안전의 결여, 외로움과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Roop, *Genesis*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Harrisonburg: Herald Press, 1987).

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데 묶어 소개하고 있다.<sup>57</sup> 과도한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건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sup>58</sup>

전통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함에서 기인한 행동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으로 보아야 하는가?<sup>59</sup> 아니면 단지 새로운 인류 문화의 시작을 언급하는 부분인가?<sup>60</sup> 전통적으로 창세기 11장 1-9절에 붙은 별명과 같은 이름인 ‘바벨탑 사건’은 이 이야기를 편견을 가지고 보도록 독자를 이끈다. 심지어 나레이터는 탑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언어에 관한 언급과 더불어 방랑자들이 한 장소로 체류하기 시작하면서 전개된다. 등장인물인 그들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야웨의 그들에 대한 관심은 대조를 이루며, 흠여지기 두려워하는 그들과 그들의 온 땅 위에 ‘가득함’을 위하여 흠으려고 하시는 야웨의 집요함은 두드러진다. 그 흠음을 위해 언어는 섞여야 했고, 그 흠음 때문에 도시 건설은 멈춰졌다. 그들이 최선으로 여겼던 안전할 것 같은 도시 안에서 모여 거주하는 일은 야웨께서 명령하신 위험할 것 같은 온 지면 위로 흠어짐으로 바뀐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그 ‘흠어짐’은 아브람 가족의 출현과 이동으로 이어지며 복으로 바뀌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흠어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바벨탑 사건’에서의 ‘흠어짐’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긍정적이다. 이러한 흠어짐의 역설을 ‘바벨탑 사건’은 나레이터를 통하여 잠잠하게 드러내며, 심지어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독자를

---

57 Fokkelman, *읽글*, 17.

58 어떤 요소도 무조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59 Helmer Ringgren, “בָּבֶל,” *TDOT* 1, 467.

60 Hiebert, *읽글*, 29-58.

이끈다.

### 3. 바벨탑 사건과 코로나19

코로나19는 일상적인 과거의 생활로부터 인류를 몰아내 버렸다. 자연스러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전염병의 심각한 확산과 창궐, 그것의 가공할 만한 위력은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불리는 흠어짐이다. 최소 개인에서 최대 가족 정도의 크기로 공동체는 계속해서 흠어짐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뤄야 하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때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코로나19 이전과 그것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논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흠어짐’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논증했다. 긍정적일 것 같은 함께 있음은 ‘바벨탑 사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함께 있음’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야웨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흠어지지 않으려 안전한 도시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대의 그들은 야웨의 손길에 의해 강제적인 흠어짐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지막 절인 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도 계속되며 사람들의 계속된 흠어짐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독자는 보게 된다.<sup>61</sup>

코로나19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장기간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격리, 즉 ‘바벨탑 사건’과는 다른 이유에서의 흠어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게 해보도록 하자.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흠으셨던 것이 그들에 대한 야웨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면,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들의 목표는 안전하게 한데 모여 ‘거기’에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야웨의 흠으심을 심판이나 저주로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두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흠어짐에 어리둥절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공식 안에 그분을 가두어 우리의 기도와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 상황을 심판이나 저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분명 ‘바벨탑 사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벨탑 사건	코로나19 상황
거기에 정착함	거기에 정착함
흠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시와 탑을 건설함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공동체를 이룸

61 케네스 매튜스는 바벨탑 사건은 “아브람(12:1-3)이 흠어진 국가들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는 일에 감당할 역할을 예견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1」 (권대영 옮김), (NAC;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524. 원제는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26* (NAC 1A;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비벨탑 사건	코로나19 상황
야웨께서 그들의 건축물을 보시려고 내려오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심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심을 통해 야웨께서 강제적으로 흠으심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흠으심
그들이 거기에서 흠어져 온 땅에 퍼지고, 이후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됨 <sup>62</sup>	우리는 거기에서 흠어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창세기 11장 1-9절에 간략하게 기록된 소위 ‘비벨탑 사건’을 문학적 구조와 더불어 각 단어의 쓰임과 의미를 살피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이주자들이 야웨께 대항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야웨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 또는 우상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은 시날 평지에 이주했던 그들이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안전한 장소와 야웨를 섬기기 위한 높은 장소를 건축했던 것으로 보도록 독자를 이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이 한 조상의 후손이었고, 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획 중 일부, 즉 흠어지기 두려워했던 것은 야웨의 사람에 대

62 비벨탑 사건의 마지막 야웨의 행동인 사람들을 흠으시는 것을 디클라세-윌포드(deClaissé-Walford)는 언제나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들을 돕는 그분의 은혜로 평가한다. Nancy L. deClaissé-Walford, “God Came down ... and God Scattered: Acts of Punishment or Acts of Grace?,” *Review and Expositor* 103 (2006), 412-413.

한 명령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곳을 만드는 것을 막으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수많은 곳, 즉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 결과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다.

‘흩어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의 고립감은 현대 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웨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독자와 해석가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흩어짐을 통해서도, 고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벨탑 사건’은 독자에게 들려준다. 이 이야기 안에서 발생한 여러 세부 사건과 계획을 나레이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고립과 헤어짐 등을 언급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독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sup>63</sup>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 즉 심각한 이쁨과 상실을 경험하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일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라는 독자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본문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비록 우리의 눈이 현실이라는 암담한 껍질만 바라보게 되더라도, 다시금

63 대표적으로 룯기에 기록된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땅으로의 이주 이후의 사건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더불어, 머느리 룯은 자기 민족인 모압과의 이별까지 경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족은 예상하지 못했던 룯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더 튼튼한 가문을 이룬다. 보아스와 룯의 결혼에 대해서는 김준, “보아스의 아들 오벳: 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인가?”, 『구약논단』 78집(2020년 12월), 58-60을 보라.

이 연구를 통하여 구약성경 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서 발견했던 야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코로나19와 그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이 산적한 ‘현실이라는 본문’에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 본문을 뛰어넘는 부분에서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어찌면 ‘바벨탑 사건’을 나레이터가 독자에게 들려주는 주된 이유일지도 모른다.

## 5. 참고 문헌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집(2021년 6월), 132-168.

김경열, 『원리로 배우는 토라 히브리어 문법』(서울: 솔로몬, 2020).

김대웅,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 and Culture』 9권 (2015), 217-258.

김준, “보아스의 아들 오벳: 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인가?”, 『구약논단』 78집(2020년 12월), 38-65.

데이빗 돌시, 『구약의 문학적 구조: 창세기-말라기 주석』(류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3). 원제 Dorsey, Davi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빅터 해밀턴, 『창세기 I』(임요한 옮김), (NICO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원제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브래포드 A. 앤더슨/폴라 구더, 『최신 오경 연구 개론』(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원제 Anderson, Bradford A., /Paula Gooder,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Pentateuch*, 2nd ed.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7).

브루스 K. 윌키/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 2018). 원제 Waltke, Bruce K./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신득일, 「구약과 현실문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 유진 F. 루프, 「창세기」(임요한 옮김), (Believers Chuch Bible Commentary; 논산: 대장간, 2019).
- 원제 Roop, Eugene F., *Genesis* (Believers Chuch Bible Commentary; Herrisonburg: Herald Press, 1987).
- 이서영, “비접촉의 시대에서 바라본 접촉의 의미: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예수와 나병 환자의 접촉을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에서 읽기”, 『신학사상』 191집 (2020), 15-47.
- 장세훈, “코로나 시대 분열의 갈등을 넘어: 느 1:5-11에 나타난 ‘우리’의 ‘죄 동일시’ 고백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5집(2020), 1-22.
- 정대준,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 바라보는 코로나”, 『교회통찰』 안명준 편(서울: 세움북스, 2020), 56-62.
- 존 E. 하틀리, 「창세기」(김진선 옮김), (UBC; 서울: 성서유니온, 2019). 원제 Hartley, John F., *Genesis* (UBC; Grand Rapids: Baker, 2012).
-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1」(권대영 옮김), (NAC;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제 Mathews, Kenneth A. *Genesis 1-11:26* (NAC 1A;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집(2006년 4월), 124-146.
- Amit, Yairah,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 Awabdy, Mark A., “Babel, Suspense, and the Introduction to the Terah-Abram Narrative,” *JSOT* 35 (2010), 3-29.
- Bar-Efrat, Shimon, *Narrative Art in the Bible* (BLS 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DeClaissé-Walford, Nancy L., “God Came down ... and God Scattered: Acts of Punishment or Acts of Grace?” *Review and Expositor* 103 (2006), 403-417.
- Fokkelman, J. P.,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Sheffield: JSOT Press, 1991).

- Frye, Northrop,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San Diego: A Harvest Book, 1983).
- Giorgetti, Andrew, “The ‘Mock Building Account’ of Genesis 11:1-9: Polemic against Mesopotamian Royal Ideology,” *VT* 64 (2014), 1-20.
- Harland, P. J., “Vertical or Horizontal: The Sin of Babel,” *VT* 48 (1998), 515-533.
- Hiebert, Theodore, “The Tower of Babel and the Origin of the World’s Cultures,” *JBL* 126 (2007), 29-58.
- Kaddari, M. Z., and H. Ringgren, “נִצֵּט,” *TDOT* 9, 461-464.
- LaCocque, André, “Whatever Happened in the Valley of Shinar?: A Response to Theodore Hiebert,” *JBL* 128 (2009), 29-41.
- Longman, Tremper, III, *Genesis* (The Story of God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16).
- Mayer, G. “יָרַד,” *TDOT* 6, 315-322.
- Polzin, Robert, “‘The Ancestress of Israel in Danger’ in Danger,” *Semeia* 3 (1975), 81-98.
- Ringgren, Helmer, “בָּבֶל,” *TDOT* 1, 466-469.
- Ross, Allen P., “Studies in the life of Jacob: Part 2. Jacob at the Jabbok, Israel at Peniel,” *Bibliotheca Sacra* 142 (1985), 338-354.
- Strong, John T., “Shattering the Image of God: A Response to Theodore Hiebert’s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JBL* 127 (2008), 625-634.
- Tull, Patricia K. “Jobs and Benefits in Genesis 1 and 2: A Feminist Biblical Theology of Creation,” Patricia K. Tull and Jacqueline E. Lapsley (ed.), *After Exegesis: Feminist Biblical Theology*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5), 15-29.
- Wenham, Gorden J. *Genesis* (WBC 1; Waco: Word Books, 1987).

검색어

바벨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흩어짐

문학적 분석

## **Yahweh, the Scatterer: An Interpretation of COVID-19 through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Gen 11:1-9)**

Dae-Jun Jeong

Kwa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a great disaster such as COVID-19 by comparing it with an incident in the Old Testament and to draw its meaning. In general, we tend to understand disasters like COVID-19 as God's judgment on human sins. Although there is no overlap between them, from a disease standpoint,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and COVID-19 distinctly share the "scattering" of people.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tower of Babel is negative just like the way people look at COVID-19. It seems to imply God's punishment to human beings for their disobedience.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arrator does not describe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www.kci.go.kr

in a negative way. In addition, it closely examines and analyzes the literary structure, the use of words, and its contents. In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YHWH shows His grace and love by acting directly to those who build the city and the tower, rather than punishing them. It culminates in the positive, fruitful scattering of the people. The word “scattering” seems to have negative meaning; however, the scattering in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does not demonstrate negative connotation.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see the COVID-19 situation as negative, as its enforcing people to experience voluntary or mandatory scattering is mainly due to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is God’s concern and love to us even in incidents which are interpreted negatively. Moreover, by apply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o a trying situation such as COVID-19, we can find a message of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 Keywords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COVID-19

social distancing

scattering

literary analysis

- 투고일: 2021년 10월 6일
- 심사일: 2021년 11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0일

[www.kci.go.kr](http://www.kci.go.kr)